광양에 국내 유일 전기강판 공장 들어선다

포스코, 연 30만톤 생산 구축
전기차 소재 거점 도약 기대
율촌 수산화리튬 공장도 준공
전남도 "금속·미래차산업 지원"

포스코그룹은 최근 광양제철소 내 고효율 무방향성 전기강판(Hyper NO) 공장을 준공했다. 포스코광양제철소 제공

세계적 자동차 시장이 친환경차 위주로 재편되면서 전기강판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는 가운데, 광양에서도 전기차 구동 모터 제작에 쓰일 국내 유일의 대규모 '고효율 친환경 전기강판 공장'이 들어선다.

30일 전남도에 따르면 전날 포스코는 광양 율촌산업단지에서 고효율 친환경 전기강판 공장 1단계 준공식을 개최했다.

포스코는 이번 1단계 준공으로 고온열처리설비, 냉간압연설비, 세정코팅설비 등 연간 15만톤 규모의 전기강판 시설을 갖췄다.

포스코는 오는 2024년까지 약 9242억원을 추가로 투입해 15만톤 규모 시설을 추가로 준공한다. 30만톤 규모 시설이 모두 완공될 경우 전기차 600만대를 생산할 수 있는 전기강판 생산시설로 국내외 공급망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게 된다.

전기강판은 전기·자기를 응용한 기기에 사용되는 철강 제품이며 전자기적 특성이 우수하고 전력 손실이 적다. 포스코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전기차 구동 모터에 사용되며 에너지손실을 최대 30% 줄여주는 고효율 무방향성 전기강판 생산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

포스코는 전기차 차체 고강도 경량화 강판인 기가스틸 100만톤 생산 체제 구축에 이어 고효율 전기강판까지 광양 포스코에서 전문적으로 생산하게 되면서 친환경차 소재 중심지로서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전남도는 민간이 주도하는 미래전기차 시대에 맞춰 금속소재 복합성형 테스트베드, 이차전지 기회발전특구, 이(e)-모빌리티 글로벌 혁신특구 등 미래차 금속소재·신소재 기술개발과 기업 지원 기반 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전남도 관계자는 "기가스틸에 이어 전기강판 생산설비 구축까지 전남이 전기차 소재산업을 이끌 동력을 얻게 됐다"며 "전남도의 전통 주력산업인 철강산업을 기반으로 미래 최첨단 산업 수요에 부응하는 고부가 친환경 금속·미래차 소재산업을 선도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포스코는 같은날 포스코필바라리튬솔루션의 수산화리튬 공장도 광양 율촌산업단지에 함께 준공했다. 이날 준공한 수산화리튬 제1공장은 이차전지 소재용 연산 2만 1500톤 규모이며, 2024년에 2단계가 준공되면 4만3000톤의 생산체제를 갖추게 된다. 수산화리튬 4만3000톤 규모는 전기차 약 100만대를 생산할 수 있는 규모다.

최황지 기자 hwangji.choi@jnilbo.com

'쓰레기 소각장 건립 골머리…'

1면서 계속 순천시 관계자는 "법과 절차에 따라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해 예비후보지를 선정하고 가장 타당성이 높은 곳을 최종 후보지로 선정했다"며 "현재는 전략환경영향평가가 진행 중으로, 실제로 최종 후보로 선정된 것도 아니다. 하지만 주민들의 반대 의견을 고려해 오는 7일 공청회를 열기로 했다"고 말했다.

광양시와 곡성군의 소각장 건립사업도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당초 동일생활권인 순천시, 여수시와 함께 광역소각장 건립을 추진하려다가 단독으로 소각장을 만들기로 한 광양시는 아직 쓰레기 소각장 입지선정위원회 조차 구성하지 못했다. 현재 광양지역 내에서 쓰레기 소각장을 유치하려는 후보군이 없는데다 입지 선정 방식을 용역으로 할 것인지, 전문가 의견 등으로 진행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확정하지 못한 채 내부 조율 중이다.

곡성군은 현재 입지 선정을 위한 용역을 진행 중이지만 아직 갈길이 멀다. 지난해 시행했던 쓰레기 소각장 유치 공모에 단 한 곳도 신청한 곳이 없었고, 올해 초 마을 주민들과 함께 입지선정위원회를 꾸렸지만 여전히 주민 반발은 가장 우려되는 상황이다.

곡성군 관계자는 "A, B, C그룹으로 나눠 대략적인 입지를 선별했다"며 "다만 A그룹 대상지를 중심으로 주민설명회를 하고 있고, 친환경 쓰레기 소각장을 벤치마킹하면서 주민들의 수용성을 높이려고 하지만, 여전히 주민들이 소각장이라고 하면 부정적 인식이 많다. 내년 1월에는 부지를 확정지었으면 하는데 더 늦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본사인사

▲ 신재현 담양주재 겸 함평주재 부장
〈2023년 12월 1일자〉

전남서 초소형 전기차 전용도로 첫 시범 운행

오늘부터 내년 11월까지
고하대로·무영로·압해대교

초소형 전기자동차 시장 확대를 위해 전남에 전국 최초로 전용도로가 시범 운행된다.

이번 시범운행은 초소형 전기차 시장 확대를 가로막는 가장 큰 걸림돌인 자동차전용도로 진입 금지 규제를 해소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

전남도는 전남경찰청과 함께 12월1일부터 내년 11월30일까지 1년간 초소형 전기차 자동차 전용도로 시범운행을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시범운행은 목포·무안·신안 인근 자동차전용도로 구간의 고하대로·무영로·압해대교에서 이뤄진다.

전남경찰청이 허가한 초소형 전기화물차 7대만 운행할 수 있으며 이외 초소형 전기차는 기존처럼 통행이 금지된다.

초소형 전기차는 2017년부터 매년 2000~3000여대가 국내에 보급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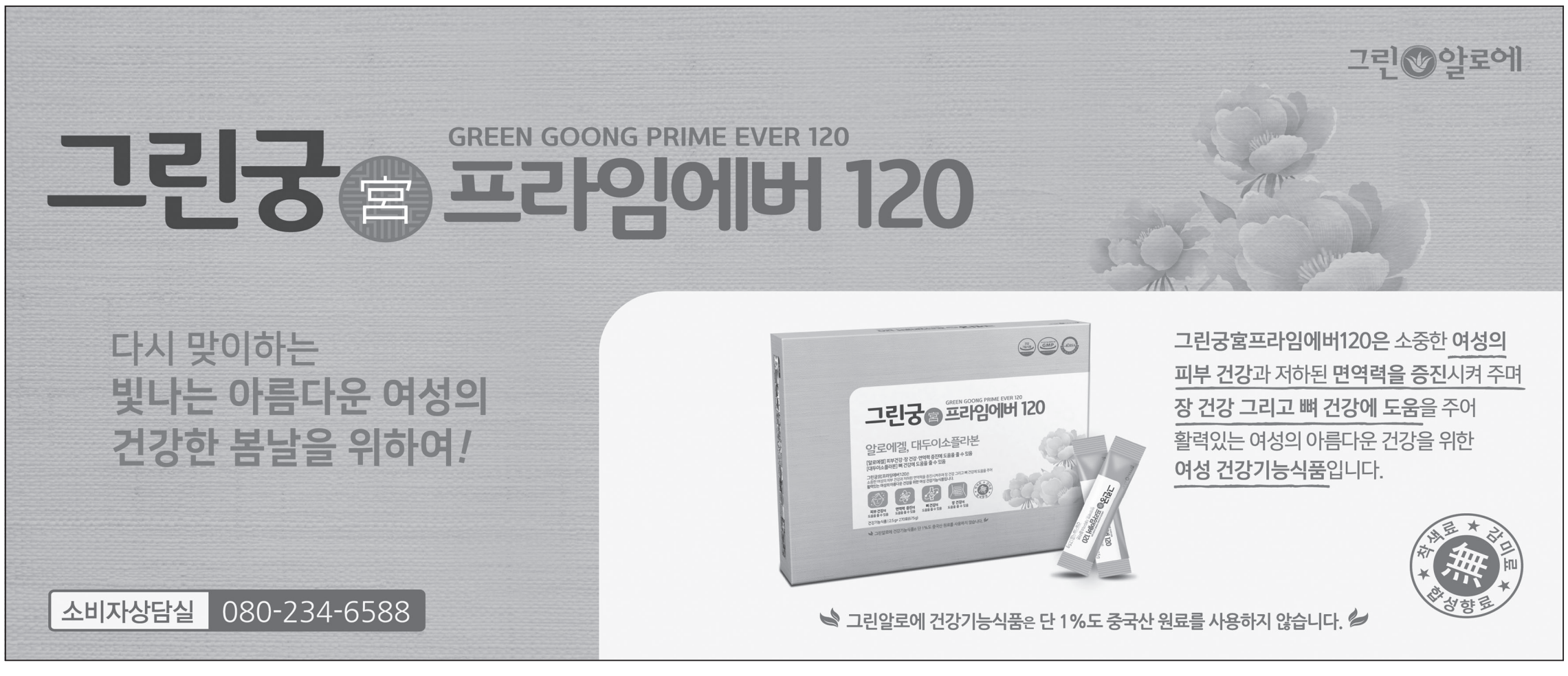
하지만 안전상의 이유로 '도로교통법'에 따라 자동차 전용도로 진입이 금지돼 자동차로서 기능을 제약받고 있다.

이에 전남도는 2019년 이(e)-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계기로 초소형 전기차의 안전성 입증을 위한 자동차전용도로 주행 실증을 통해 주행·충돌안전성 등을 입증했다.

또 최근 초소형 전기차 규제 해소를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 자동차전용도로 시범운행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번 시범운행을 통해 자동차전용도로 진입 금지 규제가 해소될 경우 소상공인의 주력 배송 수단인 1t 경형화물차를 대체함으로써 초소형 전기차 시장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남도는 앞으로 시범운행 범위를 초소형 전기차까지 포함해 확대하고 우정사업본부의 택배·우편물 배송에 초소형 전기차 도입 확대를 관계 부처에 건의할 계획이다.

김종갑 전남도 전략산업국장은 "시범운행 기간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객관적 성과분석을 통해 하루빨리 초소형 전기차가 자유롭게 자동차 전용도로를 달리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황지 기자